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3D DIGITAL PIS에 어도비, KT, DYETEC연구원 등 테크 기업과 디지털 패션 워크플로우 클로버추얼패션, 패션 디지털 혁신 리드한다⁽¹⁾

클로버추얼패션(이하 클로)이 8월 23일(수)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뷰 인 서울 2023(PIS 2023)'에서 어도비코리아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테크 기업과 함께 섬유·패션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패션관을 선보인다.

클로는 '직접 경험하는 패션과 디지털이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패션 산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패션 워크플로우와 함께, 인공 지능(AI), 증강 현실(AR)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보다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

할 예정이다. 특히 5개 존으로 구성된 디지털 패션관에서는 클로와 어도비코리아뿐만 아니라 DYETEC연구원, KT, 빙셈메타, TCAG, 엔비디아, 자이넵스, FNS홀딩스 등 8개의 테크 기업이 함께 하는데, 각 존마다 다양한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어 단순한 감상을 넘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클로는 자사 의상 제작 소프트웨어인 '클로(CLO)'와 더불어, 협업 3D 디자인 워크페이스 '클로셋(CLO-SET)', 디자이너들의 오픈 마켓 플랫폼인 '커넥트(CONNECT)'의 유기적인 디지털 패션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고, 현장에서 가

상으로 의상을 착용해볼 수 있는 버추얼 피팅(Virtual Fitting)과 자동 의상 생성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 체험존을 선보인다. DYETEC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섬유소재 소싱 플랫폼 'FabricDive'는 디지털 섬유 소재 물성을 활용한 비대면 소재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상소료 소재와 실물소재를 직접 비교만져볼 수 있는 체험존을 선보인다. DYETEC 연구원은 섬유소재 제조기업에 3D 가상 의류 제작을 위한 물성측정 및 클로교육 지원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D DIGITAL LF, DX 2년여 만에 성과... 초개인화 마케팅 목표⁽²⁾

'리복' 클럽C 스니커즈, 실시간 검색량 & 매출 증가

LF(엘에프)가 디지털 전환 2년여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LF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고객 니즈에 대응했고 이는 곧 판매를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상품 기획 초기 단계부터 고객들의 실시간 검색 트렌드를 분석해 활용한 것이 실질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디지털 전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자 매출 상승도 뒤따른다. '리복'의 클럽C 스니커즈의 경우 올해 들어 고객들의 포털 내 실시간 검색량이 지난해 대비 3배 늘었고 판매량도 두 배 증가했다. 고객 실시간 검색량 변화를 초기에 감지해 기존 시즌보다 빠르게 출시한 '리복 반팔 아노락'은 전년 대비 3,450%의 폭발적인 판매 성장을 보였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빅데이터 기반의 EIS(EF) 구축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과 '상품기획 시스템 재구축', '매장관리 시스템 재구축'을 주요 사업과제로 삼았다. 특히 오프라인 고객·매장관리 영역의 매장관리(POS) 시스템은 RFID 적용과 O2O 기반 상품-고객 매칭 트래킹을 통해 효율적 재고관리 성과를 이뤘고 현장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향후 LF는 고객 반응형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이 찾은 상품을 미리 예측해 제품을 출시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환경 전환도 진행하는 등 초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FASHION

MZ가 열광하는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 서울 상륙기⁽³⁾

국내 첫번째, 아시아 두번째 매장 정식 오픈



슈프림 서울 외관



국내 첫 오픈한 '슈프림' 내부

작년부터 화제를 모았던 '슈프림'의 한국 상륙이 드디어 실현됐다. 지난 8월 19일 미국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슈프림'이 한국에 상륙했다. 도산공원 인근에 오픈한 '슈프림 도산'은 한국에서는 첫번째 매장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오픈했다. 세계 16번째 '슈프림' 매장이자.

'슈프림'은 사람들의 오픈런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예약이 마감됐다. '슈프림' 매장 외관은 상징적인 박스 로고 플래카드가 돋보이고, 매장 내부는 티셔츠 진열대, 행잉 스케이트 데스크가 특징이다. 콜라주 벽과 그래픽 벽화, 총알구멍 모티프로 포인트를 줬다.

한편 '슈프림'은 1994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시작한 스트리트 캐주얼 웨어로 '나이키', '라코스테', '루이비통' 등 영역을 넘나드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신제품을 매주 목요일에 소량씩 발매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드롭데이마다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슈프림 도산' 오픈을 기념해 국내에서는 무궁화 사신이 인쇄된 한정판 티셔츠를 출시했다. 정가 7만원대의 이 티셔츠는 리셀 플랫폼에 30만원 가까운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다.



에이피알이 새롭게 오픈한 '넬디' 홍대 플래그십스토어

FASHION

에이피알, 포스트밸류 1조 달성... 상장 기대 상승⁽⁴⁾

상반기 영업이익 480억원, 프리IPO 1,000억원 투자 유치까지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러한 가운데 CJ 온스타일로부터 1,000억원 규모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조를 달성했다. 에이피알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상반기 매출액 2,499억원, 영업이익 4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4%, 영업이익은 711.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탄탄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내년 IPO 시장 진

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상반기 실적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영업이익이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인 392억원과 비교해봐도 22.3% 성장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산한 에이피알의 '직접 12개월(LTM)' 영업이익은 약 812억원에 달한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1,400억원 규모 투자 유치를 받아 기업가

치 7,000억원을 평가받은 바 있다. 지난해 실적 공개된 이후인 6월에는 CJ 온스타일로부터 기업가치 1조원에 해당하는 1,000억원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 에이피알은 뷰티 부문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캐주얼 브랜드 '넬디'의 해외 진출 및 플래그십스토어 재오픈 등 패션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FASHION

DYETEC연구원, PIS서 지속가능성 가치 실현⁽⁵⁾

대구 섬유 염색 클러스터 지속가능 섬유공공관 운영

DYETEC연구원이 23~25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뷰 인 서울 2023'에서 지속가능성 가치를 실현한다. DYETEC연구원은 PIS에 '대구 섬유 염색 클러스터 지속가능 섬유공공관(부산번호 13)'을 구성해 섬유 제조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 기반지원사업'인 친환경 제조공정을 갖춘 '그린&클린팩토리 전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대구 섬유 염색 클러스터 지속가능 섬유공공관'은 '지속가능 섬유공공관'과 '지속가능 섬유포럼'으로 운영된다.

'지속가능 섬유공공관'에는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엔디아이, 서진텍스타일, 네스프, 동진상사, 부성티에프시 대구공장, 삼환염공 6개사가 개별부스로 구성된다. 친환경 제조공정을 통해 만든 친환경 인증제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섬유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속가능 섬유포럼'은 리사이클, 생분해 원사 및 코팅수지를 적용한 패션의류 소재, 친환경 고내구 아웃도어 소재, 천연염색 소재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TEXTILE

'지속가능성' 패션에 동참하는 글로벌 브랜드⁽⁶⁾

폐기물 활용, 재고 소재, 뽕나무 껍질 등 친환경 소재 개발



서스테이너블 럭셔리 여성복 '리포메이션'



친환경 소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보테가 벤테타'

최근 패션업계에서 패스트패션에 대한 생태적 및 사회적 영향이 주목받음에 따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도 '지속가능성' 가치를 수용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시장에 따르면 '구찌', '리포메이션', '보테가 벤테타' 등의 친세수많은 브랜드가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이 지속가능성 패션을 실천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친환경 소재에 대한 개발 및 활용이다.

'구찌'는 폐기물, 버려진 카펫 및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 남성복과 트랙에 라인에 적용하고 있다. 구찌 하우스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디자인 하우스를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럭셔리 여성복 '리포메이션'은 리사이클 소재의 활용도가 크고 오래된 재고 원단, 빈티지 의류를 업사이클 하여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전세계 유명 셀럽들이 '리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다. '보테가 벤테타'는 뽕나무 껍질을 새로운 소재

의 원천으로 활용한 핸드백을 출시했다. 뽕나무 껍질을 개발한 소재는 환경 오염이 적을 뿐 아니라 기존 소재보다 노후가 느려 '지속가능성'에 부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외에도 '매기 마릴린'은 유기농 실크, 유기농 면 등 지속가능한 직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타힐피거'는 SCM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를 모든 제품에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디토앤드... 클로버추얼패션, 패션 디지털 혁신 리드한다, 2023년 8월 21일
 (2) 디토앤드... '패션-디지털-트렌드': LF, DX 고도화 성공, 2023년 8월 15일
 (3) 한국경제... '도산공원엔 간 줄...' '뿔공작 사별' 슈프림 상륙, 2023년 8월 21일
 (4) 에이피알, 본사 제공
 (5) 국제섬유신문... 다이텍, PIS서 대구 섬유 염색 클러스터 지속가능 섬유공공관 참가, 2023년 8월 21일
 (6) TIMESNOW_5 Luxury Brands That have taken the Eco-friendly and sustainable route, 2023년 8월 18일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

문의 : 다이텍연구원 소재빅데이터연구원
 Tel : 053-350-3734, 3743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